■ 광주·전남 주요기업들 '더위 사냥' 백태

점심은 보양식… 작업복은 아이스 조끼

기아 광주공장 혹서기 집단휴가 실시

광양제철 진료팀 가동 수면실 운영도

광주·전남 주요 기업들이 '무더위 사냥'에 나섰다. 기업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수박이나 빙과류를 수시로 제공하고, 보양식으로 입맛을 돋우기도 한다. 폭염 절정기에는 아예 집단 휴가를 떠나거나 점심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아이스조끼 등 이색용품들로 더위를 내쫓기도 한다.

25일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들에 따르면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와 작업 능률 유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혹서기에 맞서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김준식 소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에게 수박과 팥빙수를 제공, 격려하고 있다. 부서별로 제빙기 650여대를 비치해 수시로 얼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입으면 시원해지는 아이스조끼도 활용하고 있다.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로 구성된 진료팀을 가동하고, 더위로 잠을 설치는 야간교대근무자들을 위한 수면실을 운영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혹서기인 다음달 2~6일 아예 공장 문을 닫고 집단휴가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완도 명사십리에 하계 휴양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또 다음달 말까지 매일 오후 2~3시께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캔음료를 특별간식으로 제공한다.

삼성광주전자는 세계 굴지의 에어컨 생산 공장인만큼 작업장에 에어컨 시설이 잘 갖춰져 더위를 이기고 있다. 현장별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비치해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복날이나 토요일 특근 때는 치킨·피자·수박 등을 제공한다. 점심 메뉴도 보양식 코스를 개발해 삼계탕·장어구이 등 직원들의 입맛을 살리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중식시간을 30분 연장해 작업능률을 유지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연장돼도 퇴근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점심 메뉴로는 황기와 인삼을 넣은 한방갈비탕과 장어추어탕 등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에어커튼을 설치해 더운 공기를 차단하고 에어컨·대형 선풍기 등 다양한 냉방기기를 가동해 더위를 쫓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작업장에 식염수를 비치하고 일정시간 작업 후엔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무더위를 쫓는 싸움이 한창이다.

현대건설은 야외 작업 현장에서 그늘막을 친 폭염 대피시설인 '쿨링 센터(Cooling Center)'를 운영하고, 15~20분 간격으로 소금을 넣은 냉수 한 컵 마시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얼음 팩이 부착된 조끼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모 내피에 부착하는 땀 흡수대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이스 머플러도 기본 지급품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 사람이 직접 주네

게 제품을 나눠주고 있다.

'인간 자판기'로 분장한 남양유업 홍보 도우미가 25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앞 광장에서 고품격 주스음료인 '앳홈(at home)' 홍보를 위해 줄을 선 시민들에

/연합뉴스

폭염에 전력 수급 비상

7월들어 최대 사용량 7번 경신

올 7월에만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 사용 기록을 7차례나 갈아치우는 등 전력 사용이 급증,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순간 최대 사용량을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지난 22일 오후 3시 6761만kW로 여름철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9일 기록한 최대전력 사용량 6321만kW보다 6.9% 뛰어넘은 수치다.

사상 최대 경신은 지난 1일 6327만kW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고, 2일 6327만7000kW, 5일 6458만kW, 6일 6502만kW, 19일 6568만kW, 20일 6700만kW, 22일 6761만kW 등 이달 들어서만 벌써 7번째 경신됐다.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22일 전력 예비율이 8.4%까지 떨어졌다. 예비율이 8%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수위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지역도 22일 여름철 최대전력 사용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최대 전력 사용량은 482만kW로 지난해 8월20일 414만kW를 16.4%나 뛰어넘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통상 8월 2~3주 무렵에 나타나는 여름철 최대전력 사용이 7월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휴가철 이후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수위로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 SUV 中서 도요타 제쳤다

2분기 5만1908대 판매 1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2분기 중국 시장에서 5만1908대의 SUV를 팔아 1위를 지키던 일본 도요타를 제쳤다. 이 기간에 도요타는 4만2196대를 팔아 2위로 밀려났다.

지난 1~3월 도요타에 밀렸던 현대·기아차는 4월에 1만7435대를 팔아 1만4982대의 실적을 올린 도요타를 누른 데 이어 5월과 6월에도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현지에서 구형 스포티지와 투싼, ix35, 쏘울 등 4종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도요타는 RAV4, 프라보, 하이랜더, 랜드크루저 등 4종을 팔고 있다.

쏘울은 크로스오버차량(CUV)에 가깝지만 중국에서는 SUV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경기지표 호전 불구 신설법인 수 줄어

2분기 광주·전남 825개 … 작년보다 103개 감소

올 2·4분기 광주·전남 지역의 법인 설립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5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2·4분기 광주·전남 지역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신설법인 수는 825개로 전 분기(866개)보다 41개(4.7%), 전년 같은 기간(928개)보다 103개(11.1%) 감소했다.

광주지역은 452개로 전 분기(422개)보다 30개 증가했지만 전남지역은 373개로 전 분기(444개)보다 71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58)을 제외한 전 업종(-99)에서 감소했는데 제조업은 기타 기계·장비(-10), 화합물·고무·플라스틱(-8), 자동차·트레일러(-5), 기타 제조업(-26) 등을 중심으로 30개가 감소했다.

또 건설업의 신설법인은 153개로 전 분기보다 25개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31), 부동산.임대업(+13), 도소매업(+9) 등을 중심으로 58개가 증가했다.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2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730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8.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5천만원 이하 453개(54.9%), 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 277개(33.6%), 2억5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5개(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9개(3.5%), 10억원 이상 11개(1.3%) 등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하의 창업 비중이 전 분기보다 2.4%포인트 증가했고 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의 창업 비중은 2.9%포인트 감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법 "사내 하청 직원도 2년이상 근무땐 정규직"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농수산물 수출 급증

상반기 8367만달러 … 작년보다 38% 늘어

전남지역의 올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올 상반기 수출액은 8367만2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6% 늘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3642만8000달러로 지난해(2275만7000달러)보다 60.1% 증가했으며 수산물은 4724만4000달러로 지난해(3807만2000달러)보다 24.1% 증가했다.

특히 난초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950% 증가한 213만1000달러 수출실적을 올렸다. 팽이버섯의 경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시장에 348% 증가한 75만7000달러를 수출했다.

수산물은 전복·톳·미역·넙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넙치는 미국, 캐나다, 일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67만4000달러를 수출했고 톳은 지난해 부진했던 일본 수출이 회복되면서 36% 증가한 1233만3000달러를 수출했다.

전남산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5290만1천달러), 중국(816만6000달러), 대만(749만달러), 미국(648만3000달러), 베트남(203만2000달러), 필리핀(197만3000달러), 홍콩(168만1000달러) 순이며 수출국이 점차 다변화 돼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복권 (제39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2	9	17	19	42	2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276,854,975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2,561,833	40
3	5개 숫자 일치					1,164,483	1,462
4	4개 숫자 일치					44,222	76,998
5	3개 숫자 일치					5,000	1,150,232

팝콘복권 (제20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160934
2	1억	2조	812496
		1조	681988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4527
5	50만	각조	9134
6	2천	각조	13
		각조	62
		각조	64
7	1천	각조	8
		각조	6
		각조	5

▲ 코스피지수 1,758.06 (+19.61)
▼ 코스닥지수 483.69 (-15.19)
▼ 금리 (국고채 3년) 3.85% (-0.07)
▼ 원·달러 환율 1,198.80원 (-4.70)
※수치는 23일 기준 1주전과 비교